

[기획] >> 3면
축제 관련 논란

[사진기획] >> 4면
휘뚜루마뚜루 이모저모

[심층] >> 5면
글캠 감사위 부결

[심층] >> 7면
성적평가 방식

GUESS WHO'S COMING

QUINQUATRIA

LINEUP

05/23 (목)
22:00-

05/24 (금)
20:30-

대학 축제, 그 이면을 살피다

HUFS GLOBAL FESTIVAL

2019 MAY 14-16

휘뚜루마뚜루

THREE DAYS

다양한 테마의 주권 부스
정수당 잔디밭 피크닉 힐링존
학생회관 앞 푸드트럭존

학과 연합 이색 야간 부스
빛나는 빛나두길 라이트 터널
축제 액세서리 나눔
타로 & 시주 부스 오픈

05/23 (목) 22:00-
05/24 (금) 20:30-
05/25 (토) 18:00-

DJ PARTY in 세향관 학교 안의 작은 놀이공원 : 바이킹

초대가수 공연
Kassy 케이시
Hyun-Ah 현아

초대가수 공연
ELO 옐로
Hoody 후디
Punchnello 펀치넬로
Simon Dom
3면에서 계속

글·사진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5월을 맞아 대학가에선 축제가 한창이다. 이는 우리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양 캠퍼스 모두 축제를 둘러싼 달갑지 않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논란의 자제한 내막을 알아봤다.

국제지역대학원, 싱가포르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해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글로벌 연구네트워크(GRN)사업단(이하 GRN 센터)과 국제지역연구센터가 지난 4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싱가포르 쥘 탕글린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 대회는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학원 및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대학원(RSIS)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3년째 후원하고 있는 '미국 주도 동맹의 연계: 아태지역 및 역외로의 확장'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진의 주도로 △미국△유럽△일본△호주△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의 대학 및 연구소 소속의 연구진과 함께 수행 중이며, △호주△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 등에서 세계 각국의 주요 학자 및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교 연구진 또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확보해 성공적 개최



▲국제학술대회에서 활발히 토의중인 참가자들
(출처:학교홈페이지)

를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다수의 인원 또한 회의에 참여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에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동맹 정책은 오랜 기간 해당 지역 및 국제 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해왔으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해당지역에서 전개되는 국제질서가 변화 및 미국 대외정책 방향 전환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 미국과 관련 국가들이 지속적 동맹관계를 맺어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다. 이와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증대하고 새로운 지역질서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수시설명회 '너의 합격이 보여' 성황리 개최



▲수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출처:학교홈페이지)

지난 11일 우리학교 입학처는 대전에서 '너의 합격이 보여' 수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국 권역별로 진행되는 설명회로써 우리학교 입학할 희망하는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수시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행사는 △2020학년도 전형 안내△모의논술△학부모 브런치 토크(1:1 상담) 순으로 진행

됐다. 2020학년도 전형안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리학교 전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더불어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안내 또한 이뤄졌다. 모의논술은 실제 시험과 같은 형식으로 100분간 치러졌다. 이후 모의 논술 출제위원장인 장태엽 ELLI학과 교수가 직접 △출제의도△채점기준△모범답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입학 사정관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브런치톡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전지역에서 약 260여 명이 참여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및 학부모는 현장접수를 통해 설명회를 듣기 위해 모였다.

한편 우리학교 입학처는 앞으로 △이번 달 25일 토요일 부산 벡스코△6월 15일 토요일 대구 엑스코△6월 29일 토요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7월 24일 수요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순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ON - AIR

AR / VR

BIG DATA

ADTECH

CONTENTS

& MORE

dcc

Digital Creative Center

오리콤은 한컴, 두산매거진의 디지털 전문가들과 함께 DCC(Digital Creative Center)를 운영하여 차별화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R!COM

IMC IDEA GROUP

서울캠퍼스 후문 주택가에서 화재 사망 사고 발생, 추모의 물결 이어져



▲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국제학사 1층에 마련된 분향소

지난 9일 목요일 우리학교 후문 주택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파루크 무미노브(Farrukh Muminov)(상경·국통 16) 씨와 무탈 울다셰브(Mutal Yuldashev)(상경·국통 16) 씨가 사망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화재원인은 전동 키보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잠정 결론을 낸 바 있다.

국제입학관리팀과 유학생 종합지원센터의 사건보고서에 따르면 9일 파루크 무미노브 씨는 경희의료원 영안실에 안장됐다. 또한 무탈 울다셰브 씨는 한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후 중환자실로 이동해 치료중인 상황이었으나 19일 오전 8시

45분 경 끝내 사망했다. 시신 운구는 20일 오후 3시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파루크 무미노브 씨의 분향소가 10일 학생회관 1층에 설치됐으며, 이어 19일 같은 공간에 무탈 울다셰브 씨의 분향소가 설치됐다. 이 곳에는 헌화와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또 무탈 울다셰브 씨의 입원치료 지원금 마련을 위한 모금함이 서울캠퍼스(△본관△글로벌비움△학생식당△붉은광장△사이버관)와 글로벌캠퍼스(△어문관△백년관△학생식당) 곳곳에 설치됐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협의회에서도 상당량의 기금을 기탁한 바 있다. 또한 GSA와 중국 유

학생회의 구성원들은 시간대를 나눠 2인 1조로 모금함을 관리했다. 5월 20일 기준 최종 모금액은 46,481,383원으로 집계됐다. 박정원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모금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건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결과가 모금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우리학교 학우에 대한 △동문△학생△교직원들의 추모가 잇따르고 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우리학교 역사관에서 ‘한국의 정상외교와 외대’ 특별 전시 개최돼



▲우리학교 역사관 특별전시 전경



▲우리학교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역사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교 65주년과 개관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기획 전시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정상외교와 외대’라는 슬로건 하에 기획된 이번 전시 행사는 세계와 소통하며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를 선도해온 우리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이는 그간 우리학교를 방문한 세계 각국 정상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관 전시 내용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1954년 개교 이래 전 세계 언어와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개척자의 심정으로 헌신해 왔다. 이를 통해 우

리학교는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민간외교를 선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구촌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맥을 같이 하며 따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 각국 정상은 우리학교를 찾아 “한국의국어대학교는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특별 전시는 6월 14일까지 진행되지만 상설전시는 평일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 근로자의 날·어버이날 기념 감사 떡 전달



▲이선범 비대위원장이 감사 떡을 전달하는 모습 (출처 :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이번 달 8일 근로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단(이하 비대위)은 우리학교 내의 비정규직과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떡을 전달했다. 이날 비대위는 약 300개 정도의 떡을 준비해 우리학교 △학생식당 조리근무자△경비원△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의 마

음을 전달했다. 이선범(서양어·포르투갈 17)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자 했다”고 말하며 감사떡 전달의 의미를 밝혔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

kotra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KOTRA가 되겠습니다.

바이어 발굴 해외투자 진출 해외출장 지원 투자유치 지원

수출애로 상담

무역·투자의 모든 것,
KOTRA와 상담하세요!

☎ 1600-7119

전 세계 126개 무역관이 도와드립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 종합 상담
☎ 1600-7119

대학 축제, 그 이면을 살피다.

최근 대학가에서 연이어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축제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또한 서울캠퍼스(이하 서울캠) 축제는 23일과 24일,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 달갑지 않은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주최 측 입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글로벌캠퍼스에서 빚어진 논란의 불씨

이번 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 글캠에서는 대동제 ‘휘뚜 루마뚜루’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푸드트럭△학생 참여형 버스△초대 가수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글캠 총학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축제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무료로 꽃 인형 악세사리(이하 악세사리)를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제 첫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몰량이 소진돼 학생들이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다. 다음날도 결과는 같았다. 총 3일 동안 배부 예정이었던 악세사리는 이틀도 안돼 전체 수량 매진으로 조기 마감됐다. 그러나 일부 총학 구성원이 다량의 악세사리를 갖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소연(경상·국제금융 15)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쯤 부스를 방문해 악세사리를 받으려 했으나 수량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날 해당 부스 앞을 지나던 중 소진됐다면 악세사리가 색깔 별로 놓여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다시 “전량 소진된 것이 맞냐”고 물었으나 역시 소진됐다는 답은 같았다. 그러던 중 부스 관계자 한 명이 다른 관계자에게 다른 학우들에게 악세사리를 보이게 놔둔 사실을 질책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재차 악세사리 잔여 수량을 물었으나 탁자 아래로 숨기며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학우는 “단순히 총학의 언행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의 부재를 전하고 싶다”며 “총학 임원들이 다른 구성원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대 가수 공연에 대한 논란도 발생했다. 총학 측은 스탠딩 좌석 마련을 위해 노천극장 무대 앞에 펜스를 설치했다. 스탠딩 좌석 배분은 지난해와 같이 공연 시작 전 의자에 앉아 있는 학우들이 달려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학생회장이 안전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전달했으나, 연예인 공연 특성상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 결국 공연 시작 전부터 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질서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공연은 지체됐고 실제로 부상자도 발생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논란엔 총학 구성원 임무 유기도 거론됐다. 초대 가수 공연 당시 행사장의 통제를 위해 배치된 학생회 구성원들이 오히려 연예인을 촬영하느라 행사장 통제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펜스가 무너지는 사태로 이어지며 책임을 파기하기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김소희 씨는 “총학 구성원은 학우들의 안전과 질서를 우선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며 “오히려 나서서 질서를 무너뜨린 점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글캠 총학생회 입장

축제를 둘러싼 학우들의 불만을 인지한 총학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 자체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며 논란은 식지 않았다. 이에 이번 달 16일, 총학 측은 새로운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총학이 게재한 공식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식 입장문에 대해 박준형(통번역·중국어) 씨는 “처음엔 총학의 행태에 분노했으나 입장문을 통해 상당 부분 납득했다”며 “오히려 총학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장문 게재에도 불구하고 총학에 대한 실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준혁(통번역·중국어 16) 총학생회장은 악세사리 배분 행사의 홍보 논란에 “총학 구성원이 악세사리를 소지하는 홍보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라며 “총학이 취하면 안 되는 행동임은 분명하며 인일하고 부주의했다”고 답했다. ‘횡령으로 비취지는’이라는 표현 논란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 개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큰 틀에서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비로 충당하겠다는 표현 역시 이러한 생각에서 사용한 것”이라 밝혔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악세사리를 과도하게 소지하는 실수로 이어진 듯하다”며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며 학우들의 의견 파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초대 가수 공연 입장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총학생회장은 “스탠딩 좌석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공연 관람’이라는 학우들의 권리를 위해 스탠딩 좌석 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것 역시 총학 측의 불찰이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추후 진행될 행

사에선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대처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공연을 촬영하며 임무를 유기한 일부 인원에 대해 “해당 인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전에 간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총학생회장의 불찰”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행사에선 간부들이 사적인 욕심을 앞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공청회 진행에 대해서는 “다음 주 공청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학우들이 실명을 걸고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임을 또 한번 느꼈다”며 “학우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되, 익명성의 패해는 줄이는 방안을 고안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청회 장소 대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으며 “공청회 이후에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총학 스스로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후속 조치로 이동 부스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우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 대동제 총학생회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제40대 총학생회입니다. 2019 글로벌캠퍼스 축제인 ‘휘뚜루마뚜루’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대동제를 준비해주시고 즐거주신 모든 학생의 일원분들과 학우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1시경에 공지를 드린 대로 저희 총학생회는 축제와 관련하여 총학생회를 향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내 커뮤니티 게시판인 ‘에브리타임’ 어플리케이션에 나온 것을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사과를 드리기 위한 공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있어서 제기되는 다양한 학우 분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성있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총학생회의 의무이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 중에 병학 중이었던 새내기세로배움터 때와는 달리 학우님들의 목소리를 중간에 어떠한 매개체도 없이 직접 청취하고, 학우님들을 직접 뵈며 사과를 드릴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학우님들을 향한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했기에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여나, 저희의 이와 같은 결정이 오히려 학우님들께 ‘억압’과 ‘특권 의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보고서 이러한 액설의 여지를 미리 헤아리지 못한 점에 있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만을 진행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에 학우님들께 사과와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기되었던 큰 틀에서의 의문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다음주에 공청회 역시 개최하여 온-오프라인 모든 경로를 통해 학우님들과 소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는 총학생회를 향해 제기된 의문에 대한 저희의 입장입니다. 1. 꽃 악세사리 배부 관련 저희 총학생회는 학우님들께서 축제를 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꽃 악세사리를 주문하여 학우님들께 무료로 배분해드리는 컨테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악세사리 총 주문량은 1천개였으며 색깔별로 100~150개였습니다. 총학생회 임원들은 이와 같은 컨테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학우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해당 악세사리를 다량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총학생회 일원 모두의 불찰이자 잘못이었습니다. 학우님들께 배분하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결정을 내렸어야했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배분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준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우님들께서 해당 사건에 대해 ‘황당’으로 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황당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총학생회 간부들의 악세사리 착용 및 휴대와 관련하여 해당 금액에 상응하게끔 총학생회 임원들의 사비를 활용하여 학우님들께 액세서로 돌려줄 수 있을만한 방안을 고민한 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연예인 공연 관련 1) 연예인 촬영 노천극장에 설치된 펜스 앞에 촬영목적으로 배치된 인원은 총학생회 홍보국 간부 3인과 HUF5 on, FB5였습니다. 그 외의 인원은 홈스 플리스와 함께 펜스를 지키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총학생회 홍보국의 경우 축제 진행과 관련된 게시를 제작과 하고 홍보실로의 제출 등의 이유로 사진을 촬영하는 인원 1명,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던 인원 1명, 그리고 AOMG측의 요청으로 별도의 요청 각도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던 인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 3명의 경우 업무상의 이유로 공연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별도로 구비된 장비가 없던 탓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어나 총학생회 홍보국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펜스 관리 인원 중 핸드폰으로 무대 촬영을 진행한 총학생회 간부 역시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인원들을 포함한 저희 총학생회 모두가 그 당시의 저희의 선택과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학우님들께 ‘권력 남용’으로 비추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다 성숙하게 행동하지 못하였음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펜스 및 안전 관리 학우 분들의 스탠딩석의 마련을 위해 저희 총학생회는 펜스를 대여하여 노천극장 무대 앞에 설치하였습니다. 공연시작 이전에 발생한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총학생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 수차례 펜스 앞으로 뛰어오는 상황에 대한 주의를 진행하였으나, 연예인 공연의 특성 상 이러한 공지와 주의를 아무리 많이 진행하여도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안전사고의 피해자와 여러 학우님들께서 연예인과 관련한 무리한 부탁들을 하신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통시다발적으로 간부들이 용대를 이는 과정에서 인건에 보다 더 치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인원이 공연 관리에 투입되었으나 수많은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학우님들께 사과드립니다. 현재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입장문과는 별개로 다음 주 중으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소통 창구 역시 만들어 학우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변과 사과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제 진행에 있어서 저희의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추가적인 의문점의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신 성실성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글캠 총학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3대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지난 수요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인 공연을 공개하였고, 그 공연에는 과거 모 단과대학 선후방 멤버가 가해자가 속한 크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외대 학보의 비상대책위원회장 인터뷰 요청을 통해 총학생회 측은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었음을 인지하였고, 관련 크루 설의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자 비상대책위원장단과 축제 주최 측은 긴급히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부 회의 및 해당 크루와의 연락을 통해 해당 크루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경위 및 설명을 전달해 드리고자 본 입장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된 크루 설의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축제 연예인 설의 과정 중 축제 주최 측으로 연락을 하여 축제 무대 공연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축제 주최 측은 당시 본교 재학 중이며 정식 용원을 낸 분등인 것을 확인하고 조금 더 외대 학우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적 요소가 늘어나는 것, 외대 축제인만큼 본교생인 어디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축제 메인무대에 연예인 공연으로 설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의가 진행된 이후 1차적으로 공연을 하는 3팀 중 1팀에 모 단과대학 단과방 선후방 멤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에 해당 공연팀에 공연을 하지 않거나 해당 멤버를 배제하고 공연을 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요청했고 후자를 크루에서 선택해 그렇게 공연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총학생회 측의 잘못이며 이와 관련하여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제 인식 후 총학생회 측은 단과방 선후방 멤버가 속해 있는 크루에 연락을 위해 한 상함을 전달하고,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4일 메인무대에 오르는 외대 출신 연예인은 크루 ‘QZQY’를 제외한 Klunch와 치리키리 두 명입니다. 다시 한번 실례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더 주의하여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서울캠 비대위 입장문 전문

◆서울캠 논란

이번 달 15일, 서울캠 대동제 ‘퀸쿠아트리아’를 앞두고 초대 가수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엔 과거 일명 ‘영어대 단톡방 성범죄’ 가해자가 속한 팀인 ‘QZQY’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단과대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음담패설을 일삼아 결국 지난 2017년 3월 우리학교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 대나무숲 제보를 통해 수면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해당 팀이 우리학교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QZQY의 섭외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학보는 이번 달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문제를 인식한 비대위는 다음 날인 17일 오후 6시에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비대위 입장문 전문이다.

이선범(서양어·포르투갈어 17) 비대위장은 “전체 총회 등 최근 다루고 있는 사안이 많아 해당 문제점에 대해 다소 늦게 인지했다”며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학우들의 문제 제기 및 희망 사항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세심한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축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 안전과 관련해 외부인 출입 통제 역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범 비대위장은 “비대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했다”며 “현재 우리학교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장이 정문과 연결돼 외부인 출입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 안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안전 대응책을 구축하고 있다”며 “자원봉사단과 경찰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캠퍼스 축제 '휘뚜루마뚜루'

이번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축제가 진행됐다. 축제명은 '휘뚜루마뚜루'로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축제 기간 동안 △학과 부스△아간 부스△명수당 피크닉존△후생관 앞 라이트 터널△DJ 파티 △푸드 트럭△바이킹△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놀 거리와 먹을거리가 준비됐다. 14일 오후 7

시 30분부터 노천극장에서 초대가수 현아와 케이시의 공연이 있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 까지 세향관에서 DJ 파티가 진행됐다. 15일에는 학생회관 앞에서 바이킹이 운영됐고 초대가수 △사이먼 도미닉△엘로△후디△염따가 공연을 선보였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학과 부스만 진행됐다.



▲ISO 부스 국제학생회 학우들



▲사학과 부스 '삼겹살 비빔면'



▲독일어통번역학과 부스 '서식당'



▲아프리카학부 부스 아프리카학부 학우들



▲중국어통번역학과 길거리 홍보 중인 중국어통번역학과 학우들



▲명수당 잔디밭에 설치된 피크닉존



▲학생회관 앞 푸드트럭



▲학생회관에 앞에 설치된 바이킹 (15일)



▲생명공학과 부스 열심히 홍보중인 학우들



▲러시아학과 부스 줄 서있는 학우들



▲국제금융학과 부스 앞에서 홍보하는 국제금융학과 학우



▲후생관 앞에 설치된 라이트 터널



▲세향관에서 열린 DJ 파티 (14일)



▲초대가수 현아 무대 사진 (14일)



▲초대가수 케이시 무대 사진 (14일)

글로벌캠퍼스 학생 자치 ‘감사위원회’ 출범 무산

지난해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리액션(이하 총학)은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체제 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이 되자 지난달 감사위에 대한 세칙을 제정해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달에 개최된 제2차 임시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결과로 감사위 안건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사실에 많은 학생들이 분노했다. 일각에선 단과대

학 회장들이 다른 뜻을 품고 이를 반대한 것이라며, 단과대학 회장들을 향한 지탄을 쏟아냈다. 하지만 한 쪽에서는 총학생회의 감사위 안건에 대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감사위 안건 부결을 둘러싸고 자세한 내막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자세히 알아봤다.

◆기존 학생자치기구와 감사체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자치 체계는 △총학△세민전준비위원회(이하 세준위)△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총학생회△도서관자치위원회(이하 도서관지위)△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7개의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된다. 졸준위는 지난해 업무상 과실이 드러나 현재 총학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며 총학생회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온 보궐선거 무산으로 역시 총학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해당 학생자치기구 중 동연만이 독자적인 감사위원 연합운영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자치기구들은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체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세준위의 경우 교비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기에 학교 측에서 감사를 따로 진행한다.

◆제2차 임시확대운영위원회 개최

그동안 자체 감사체계를 바꾸고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제2차 임시확운위를 통해 감사위 출범을 제안했다. 중운위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학생회장△총학생회부회장△7개의 단과대학 회장△동연 회장△중앙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총학은 사전에 감사위에 대한 세칙을 만들었다. 이에 중운위는 감사위 관련 세칙을 각 학과 학생회장한테 보내 검토하게 했다. 중운위에서 감사위 관련 세칙 안건 발의를 진행했고 확운위에서 논의가 열렸다. 확운위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중운위△각 학과 학생회장△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확운위에서 진행된 감사위 세칙 안건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밝혀진 부결 이유는 감사위 관련 세칙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중운위에서 마련한 ‘2019 감사위원회’ 일부 세칙을 발췌한 것이다.

〈 제3장 감사 〉
제15조 (정기감사) (1) 정기감사는 본 회칙에 명시되어있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치회비와 학생회비에 대한 예결산 내역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 (2) 정기감사의 목적은 교비, 자치회비, 각 학과 회비를 비롯한 해당 기구의 자산이 본래의 운영목적에 맞게 공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에 있다. (3) 중앙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 기간 중 피감사 단위에 대하여 감사 증빙 자료 제출기한을 지령할 수 있다. 피감사 단위가 이에 불응할 시 해당 피감사 단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정조치 이후에도 불응할 시, 제43조(징계 종류)와 제44조(징계 내용)에 의거 자치회비 등 예산 심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 정기감사 기간 중 중앙감사위원회는 피감사 단위의 책임자와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5) 정기감사를 하는 동안 중앙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정기감사 진행 및 결과 보고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특별감사) (1) 특별감사는 정기감사의 범위와 그 밖에 기타 분야 및 주제에 대한 비정기적 감사를 의미한다. (2) 특별감사의 목적은 학생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을 크게 침해한 사건을 감사하여 학교 내에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3) 특별감사는 감사 대상에 대하여 예산집행 등의 회계 사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의심될과 동시에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정기감사 외에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각호에 따라 특별감사 시행 요청할 수 있다. ① 피감사 단위 소속자의 특별감사 요청 200명 미만 규모 피감사 단위의 경우 피 감사단위 소속 10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감사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 후, 중앙감사위원회 1/2 이상의 참석과 1/2 이상의 의결을 통해 특별감사를 시행한다.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의 피감사 단위의 경우 피 감사단위 소속 20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감사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 후, 중앙감사위원회 1/2 이상의 참석과 1/2 이상의 의결을 통해 특별감사를 시행한다. 1000명 초과 규모의 피감사 단위의 경우 피 감사단위 소속 50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감사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 후, 중앙감사위원회 1/2 이상의 참석과 1/2 이상의 의결을 통해 특별감사를 시행한다.
확대운영위원회의 특별감사 요청 (4) 특별감사요청서의 감사 사유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한다. (5) 서명은 이름, 학과, 학번,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다. (6) 특별감사에 대해 확대운영위원회와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결 시 아래의 각호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감사 대상 감사 기간 감사 항목의 범위 감사 사유 (6) 특별감사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간은 해당 중앙감사위원회의 임기 하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7) 중앙감사위원회는 특별감사 기간 중 피감사 단위에 대하여 감사 증빙 자료를 각 학생자치기구 및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피감사 단위가 이에 불응할 시 학교 당국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피감사 단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정조치 이후에도 불응할 시, 제43조(징계 종류)와 제44조(징계 내용)에 의거 자치회비 등 예산 심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8) 특별감사 기간 중 중앙감사위원회는 피감사 단위의 책임자와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9) 특별감사를 하는 동안 중앙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0) 특별감사 실시 중 중앙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구의 책임자와 개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11) 특별감사 진행 및 결과 보고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리액션의 의견

지난 2일 개최된 제2차 임시 확운위는 ‘감사위’의 출범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확운위에서의 오랜 논의 끝에 결과적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총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총학은 “감사위 출범을 이루지 못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중운위의 안건이 불완전해 확운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결코 감사위 출범의 꿈을 접은 것은 아니며 이번 해 안에 감사위가 발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총학은 추가적 의결을 거쳐 감사위 출범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단과대학 및 학과 회장들의 의견

익명을 요구한 한 단과대학 학과 회장 A씨는 “감사위가 단과대학 내 행사와 학과 내부 행사의 성격이 다름을 알아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 차이를 알고 세칙에 반영한다면 충분히 감사위는 출범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다른 단과대학의 학과 회장 B씨 역시 “학과별로 건어지는 회비가 다르고 학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세칙에 묶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감사위가 출범되기에 세칙 부문에서 좀 더 단과대학별 학과 별 차이를 알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B씨는 “회의 당시 설명이 불충분했고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같았다”며 “그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단과대학 학과 회장 C씨 또한, “단과대 · 학과 별로 진행되는 △사무 방식△회계 처리△행사비용△운영방식 등 다른 점이 많은데 통합방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저 진행에 목적을 두어 당시 참여한 회장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통번역대학의 입장

이번 감사위 부결 건에 관한 통번역대학 소속 과회장들(이하 통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대는 감사위 출범 및 세칙이 의결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위가 이미 존재하는 기구인 듯한 총학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각 학과마다 자체적으로 과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가 학과 자치회비를 환수해 ‘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총학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총학이 감사위 설립에 대해 사전논의나 의견수렴도 없이 세칙을 독자적으로 작성했다고 전했다. 초안을 작성한 총학 측에서도 세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허점이 다수 발견돼 이에 관련해 이뤄진 질의에서 피감사대상인 총학 회장의 개인적인 해석만을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통대는 감사위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상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의결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위에 대한 감사는 중운위에서 운영한다는 모순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총학생회장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도 감사위의 토대가 될 세칙이 아니라 출범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의결하지 않은 확운위원들은 마치 중감위 출범을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시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존에 발의한 중감위 세칙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총학 측이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통번역대학 과회장들은 총학 측에서 발의한 중감위 세칙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 의결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대입장 전문〉

이번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부결 건에 관한 통번역대학 소속 과회장들(이하 통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1. 중감위 출범 및 세칙이 의결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미 존재하는 기구인 듯한 총학생회 측의 태도
2. 모든 학과는 학교에서 일체 지원을 받지 않아 모든 학우들이 알다시피 과마다 자체적으로 과회비를 모아 과를 운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감위가 학과 자치회비를 환수하여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총학생회 측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3. 세칙 초안이 필요하다면 먼저 세칙을 모두에게 전달 후 의견을 수렴해서 적용한 뒤 안건에 올리는 것이 맞다 생각. 하지만 총학생회는 설립에 대한 어떠한 사전논의 및 의견수렴도 없이 세칙을 독단적으로 작성.
4. 초안을 작성한 총학생회 측에서도 세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허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질의에서는 피감사대상인 총학생회장의 개인적인 해석만을 답변으로 내놓았음.

이에 통대는 중감위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나 위의 항목들을 사유로 행정상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의결할 수 없었습니다.

5. 또한,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중감위에 대한 감사는 총학생회장 및 단과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는 구조는 피감사대상인 중앙운영위원회가 감사기관인 중감위보다 상위구조에 있는 모순이 있어서 우려됐습니다.

이 밖에도, 외대알리 기사에서 여러 확운위원들이 논유했던 건설적인 보충안들에 대한 언급없이 확운위원들을 마치 ‘학과 자치회비 횡령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단어들이 사용된 점, 기사와 함께 게재된 확운위 의결 당시 사진은 사전에 사용동의가 이루어진 사진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추가로 총학생회장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도 감사위원회의 토대가 될 세칙이 아니라 출범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의결을 하지 않은 확운위원들은 마치 중감위 출범을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우려 됩니다. 또한 ‘정서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이라는 위명은 이러한 인상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게시글에서 빠른 시일내에 기존에 발의한 중감위 세칙을 공개한다고 하였는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총학생회 측이 설명이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통번역대학 예하 과회장 일동은 총학생회 측에서 발의한 중감위 세칙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 의결을 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며, 다른 확대운영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중감위 출범을 적극 지지하며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의 반응

감사위 세칙 안건 회의에 대한 부결이 알려지자 총학과 각 단과대학 회장들을 향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일각에선 감사위에 반대한 각 단과대학 회장들과 학과 회장을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성진(국제지역 · 그블 15)씨는 “학생들이 교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며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소속히 감사위가 출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수경(국제지역 · 중앙아시아 15)씨는 “감사위가 출범되지 못한다면 총학이 그뭇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자연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익명의 한 학생은 “각 학생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나눠주는 경품 같은 경우 친분을 빌미로 나눠주는 것을 봤다”라며 “이와 같은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하루빨리 각 단과대학이 먼저 나서서 감사위 출범에 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러분들의 학점은 안녕하신가요?

현재의 성적평가방식이 도입된 후 약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간 성적평가방식과 관련해 학교의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봤다.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양 캠퍼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종섭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교무처 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 측의 입장을 알아봤다.

◆현재 학교의 성적평가방식

성적평가방식은 크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된다. 상대평가란 성적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상대적 실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절대평가가 있다. 이는 교수가 설정한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로 학점을 부여하는 성적평가방식이다. 우리학교는 본래 원어강의 혹은 수강 인원 10명 이하인 강의에 한해 절대평가를 적용했지만 2014년 2학기 종강 이후 상대평가로 전환됐다. 현재 우리학교의 성적평가방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유형과 B유형은 상대평가이며 C유형은 Pass/Fail 방식이다. 이번 학기 수강편람 중 ‘수업 관련 학사 제도 안내’에서 성적평가 부분을 살펴보면 △전체 강의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시행함△A유형:A0이상 30%, B+, B0 35%, C+이하 35%△B유형(△수강생 10명 이하△교직△이공계 실험실습 강의△교양영어 진리):A0이상 40%, B+이하 60%△C유형:2시간 당 1학점인 체육 실기 과목 혹은 교·강사 요청에 의한Pass/Fail강의(이공계 실험실습, 인문대학 일부 강의 등)라고 나와 있다. 아래의 표는 우리학교 성적평가방식 중 몇 가지 예외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교직과목 중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군사학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함
 ▶재수강생, 군위탁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함
 *외국인 학생: 외국 국적 학생, 재외국민, 새터민 포함
 ▶재수강생 학점 상한: A0
 ▶학생 수 비율 산정: 소수점 아래 올림으로 계산 (예: A학점 비율이 8.1명인 경우 9명으로 산정)

▲우리학교 성적평가방식의 예외사항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과의 인터뷰

우리학교의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종섭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이하 전 교무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교 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 중인 성적평가방식에 대해 전 교무처장은 “대학수준의 교육은 옳은 것과 정의로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며 “절대평가 방식을 모두가 좋은 학점을 얻는 평가방식이라고 오인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보일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 방식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에 대해 전 교무처장은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된 이후 많은 시행착오와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소수인원 강의의 모순이 있다. 그는 “보통 수강생이 적은 강의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 긴밀한 관계가 형성돼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대평가의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낮은 학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강의의 경우엔 A0이상은 40%로 하고 B+이하는 60%로 하는 보다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성적평가 규정을 수정한 바 있다.

재수강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 방식에 대해 전 교무처장은 “재수강생들은 같은 강의를 두 번 혹은 그 이상 반복해서 듣는 것이기에 초수강생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차원에서 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단지 이상적 생각일 뿐 실제로 재수강생들이 초수강생들보다 뛰어난 성취를 얻는지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서 외국인 교환학생들에 대해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외국인 학생들은 절대평가를 적용받으니 아무래도 잡음이 생기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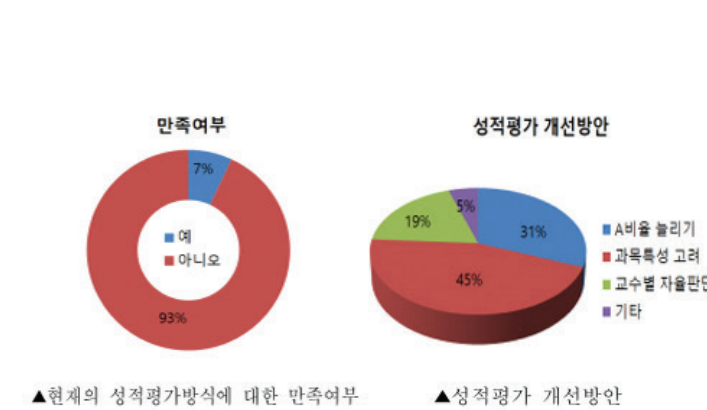
현재의 성적평가방식을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전 교무처장은 절대평가를 성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합당한 성적을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그는 “학교 측이 학생들과 보다 많은 대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대화 과정에서 학교 혹은 학생 어느 한 쪽만의 일방적 의견 제시가 아닌 보다 건설적 방식으로 대화 과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전 교무처장은 현재 성적평가방식 중 C유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유형(△2시간 당 1학점인 체육 실기 과목△교·강사 요청에 의한 Pass/Fail강의△이공계 실험실습△인문대 실습) 과목들에 대한 평가 방식 개정안은 학사종합지원센터의 발의 이후 규정기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다음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C유형은 교·강사 요청에 의해 자유롭게 Pass/Fail로 성적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교과

목명에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경우 혹은 진로취업센터와 창업교육센터에서 개설한 과목만 Pass/Fail 평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정 단어가 포함된 교과목명은 △답사△봉사△실기△실습△인턴십△체험△공연△토론△인성교육△특강△신입생세미나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 교무처장은 “학교는 성적평가방식을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성적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며 “양 캠퍼스의 교무처장은 앞으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총학생회에서 요구한 대로 무조건적인 절대평가를 시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학교의 제도가 조정의로운 제도△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프리라이더*가 최소화되는 제도로 변화됐으면 한다”며 개인적인 바람을 덧붙였다.

*프리라이더: 본래 무임승차자를 의미하는 말로 대학교 등의 조별과제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과제 등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현재 시행중인 학교의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학교 양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질문은 △현재 우리학교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만족 여부△만족할 경우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족의 이유△성적평가방식에 대한 개선방안△기타 요구사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타 대학들의 성적평가방식

다음은 다른 학교들의 성적평가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연세대△서강대△중앙대 등 4개 대학의 성적평가방식의 유형, 그리고 예외사항과 특이사항에 대해 정리한 표다.

한태현 기자 98madc@hufs.ac.k

	성적평가방식	예외/특이사항
서울대	1)교양과정 교과목 A와 B학점의 합 70% 이내 2)학사과정 교과목 A학점 20~30%, B학점 30~40% C학점 이하 30~50% 3)동일 성적등급 내의 +(상), 0(중) -(하)는 담당교수가 정한다.	
연세대	1)수강인원 21명 이상인 경우 A학점과 B학점 각각 35% 이내 2)수강인원 20명 이하인 경우 A학점 40%, B학점 50% 이내	9명 이하의 인원이 수강하는 경우 절대평가 시행
서강대	A학점 30%이내, A와 B학점의 합 70%이내, C학점 이하 50% 이내	1)외국 국적 학생과 탈북학생은 상대평가 기준에서 제외가능 2)수강인원 20명 이하/실험, 실습 과목/교직 과목/원어강의 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비율 조정 가능 단 상대평가 예외적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앙대	A 35% 이내, A와 B 합 70% 이내 D+이하 5% 이상	1)A 50%내, A와 B 합 90% 이내 -원어강의, 교양과목 중 영어 강의 -교직과정 과목 -군사학 과목 -실험, 실습, 실기, 연기 과목 2)과목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다고 계열별 부총장이 승인한 경우 3)외국인학생 및 대학원생중 선수과목이수자, 군 이라닝 수강자

▲각 대학들의 성적평가방식 유형과 특이사항(2019년 5월 기준 대학별 수강편람 참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한 미사일의 의미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북조선 인민군 전방 및 서부 전선 방어부대들이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했다. 해당 훈련은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 의해 공개됐다. 한편 우리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식량 지원을 논

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이 진행한 화력훈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가지는 의미와 이것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단순한 훈련이었을까, 훈련을 가장한 도발이었을까

북한 국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 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계획을 요해하시고 화력 타격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훈련을 전연과 서부 전선 방어부대들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부 전선방어 부대들의 화력임무수행능력을 칭찬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동시에 “훈련은 인민군대의 주업이며 강도 높은 훈련시행은 인민군대가 지녀야 할 가장 큰 애국심”이라며 “투쟁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일당백의 무식 주먹, 영웅전투원들이 되기 위해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투 임무수행능력 제고를 강조하며 “불의의 사태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북한은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다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무기** 타격 훈련을 보도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칸다르(ISKANDER)*** 러시아 지대지미사일과 비슷한 외형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스칸다르는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사거리를 최대 500km까지 조절가능하며, 맞받아치기 어려운 미사일로 꼽힌다. 군사분계선****에서 발사할 경우 우리나라 중부권 이남까지 타격권에 속해 위험이 될 수 있다.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한 지 닷새 만에 진행된 화력훈련에 우리나라 군 내부 분위기는 긴장감이 높은 상태였다. 이어 우리군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추가 도발 가능성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사포: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
**전술 유도무기: 랜스 단거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육군용 전술 지대지 단거리 탄도 유도탄
***이스칸다르: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러시아의 주력 단거리 탄도미사일
****군사분계선: 두 교전국 사이에 휴전이 제의됐을 경우 그어지는 군사행동의 경계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9일은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이하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날이었다. 당초 비건 대표는 우리정부와 함께 △북핵 수석대표 협의△남북관계 한미워킹그룹△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식량 지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의 여파로 비건 대표는 예정된

약식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튿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의 내용 역시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인사로 답변을 대신했다. 약식 회견 취소요청은 미국이 이번 화력훈련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일부 외신은 북한이 화력훈련을 진행한 것을 두고 미국 국방부가 이를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의 성명이라며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300km이상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작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신뢰 위반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1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훈련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미 협상의 후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사실상 북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평가했다.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출처: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응

북한이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 내 외신 보도와는 다르게 우리군은 “미국도 역시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미 국방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알지 못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방부는 전날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 전선 방어부대들이 발사

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공동평가에 따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사일은 16시 29분과 16시 29분에 발사됐으며,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총 2발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지난 4일에 발사한 미사일과 비교해 이번 미사일은 이동발사대에서 외형적 차이가 있었으며, 발사체 비행특성은 상이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우리나라와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을 맺은 바 있다. 합의의 내용은 △지상△해상△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화력타격훈련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9.19 합의서에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는 않아 위반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핵확산금지조약(이하 NPT)회원국들은 2020년 NPT평가 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준비위원회는 북한에 군사도발을 중단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 측 대표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제하는 것과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해 북미대화 재개 전망이 더 어두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양국 정상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한해 한미정상 회담을 개최할 것을 알렸다. 성명은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화력타격훈련이 잇달아 진행된 가운데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협의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흡 소 사 이 어 티

안녕하세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칠하담을 우리학교에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회장직을 맡은 이재은 (상경·경영 18)이라고 합니다!

Q1. 칠하담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칠하담은 개인의 창작 의지와 사회봉사를 동시에 실현하자는 취지로 2012년에 결성된 동아리입니다.

학교 주변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문동 프로젝트’와 더불어, 외부에서 의뢰하는 벽화까지 활발히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학교 타 동아리의 동방 리모델링까지도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Q2-1. 칠하담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칠하담은 벽화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이긴 하나, 그림 실력보다는 활동 의지, 조화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시다면 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학 캠프까지 함께 다양한 작업을 하며 친목을 다질 수도 있고 완성된 작업물을 보며 뿌듯함을 얻어갈 수 있어요! 매 학기 첫 두 주 동안의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해주세요!

Q3.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난 한 해 동안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칠하담이 꾸민 벽화

사건 중 하나는 이화교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신입생을 들어와서 첫 작업이기도 했고, 규모가 많이 커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처음 페인트를 만지고, 롤러를 굴리면서 마냥 신나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주민분께서 “학생들이 좋은 일 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 때의 감동이 지금까지 칠하담활동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Q4.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솔직히 종이 서서 벽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업 자체를 과하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중간중간 쉬면서 노래도 듣고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는 덜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다만 제일 힘든 일은 외부인, 특히 어린이들이 작업에 참가하게 될 때 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림 표현을 존중하지만, 작품의 전반적인 테마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적절한 정도를 조절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난 캠프에서는 숲속 주제의 벽화에 로봇을 그린 친구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벽화를 만들기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5.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 부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해준 부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일이 아주 고된데도 미루거나 몸사리는 것도 없이 항상 서로 나서서 열심히 활동해 준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과나 학년도 다 달라서 가벼운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덕분인 것 같고요.



▲칠하담 동아리 로고

새로 들어오거나 돌아오신 분들이랑도 같이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많이 부족한 부원이고 회장이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Q6. 앞으로 칠하담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타학교와의 교류나 장기 프로젝트까지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본적인 활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학교의 교실을 하나씩 꾸며나가고 이문동을 보다 아름답게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과 캠프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하고 싶어요. 조금씩 꾸준히 해 나가면 어드선가 칠하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일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현재 진행형인 미중 무역의 ‘치킨게임’, 과연 그 결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발생했다. 미국은 이번 달 8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중국은 같은 날 미국의 관세 인상은 양국 국민은 물론 세계 모두의 이익에 들어맞지 않이라며 무역 보복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무역 갈등 발생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장안구 우리하고 국제금융학과 교수를 만나봤다.

Q1.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요?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삼았습니다. 기축 통화란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제 무역 화폐의 기준을 달러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외환위기가 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달러가 이와 같은 기축통화의 의미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일정량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적당한 수준에서 적자가 유지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냉전 체제 종식과 소련의 붕괴 이후 수출시장에서 급부상했습니다. 중국은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합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소비재 상품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대량 매입한 덕분에 미국의 자금은 선순환구조²⁾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의 누적된 경상수지적자*가 미국 경제 기
 원을 악화시켰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
 국 내에는 미중 무역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사
 이 중국의 산업 및 기술발전은 미국을 따라잡았고 양국의 무역은 더 이상
 상호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후 2017년 트럼프 정부는 외화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는 신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하며 무역흑자국인 중국에게 3천억 달러 무역흑자를 1천억 달러로 줄이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 7월 6일 미국은 본격적으로 340억 달러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 중 340억 달러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무역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어 이번 달 말까지 미국의 요구가 포함된 협상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350억 달러치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렇게 무역전쟁을 서막으로 시작합니다.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과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양측 모두 국가의 체면과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물론 양국 정상의 지도력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미중무역전쟁이 그 수많은 협상과 협력을 거둬들이고서도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고 일종의 처진게임을^{***}으로 흘러가는 원인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경쟁국이 등장해 성장하는 데서 오는 위협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에 자신들의 발전과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순순환구조 :** 어떤 업무의 결과가 후속 업무에 긍정적인 효과를 전해주어 플러스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

****경상수지 :** 한 나라의 거주자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국제기구 등을 포함)가 일정한 기간 (통상적으로 회계기간 1년)동안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들과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경상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것

***2008년 금융위기 :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 된 대 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치킨게임** :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달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

Q2. 미국과 중국 각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미국은 중국에게 8가지 요구사항을 제앢했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중 무역협상안에서 미국은 중국이 개정해야 할 법률의 상세한 명세서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확인되어 중국의 구조개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는 주권 침해로서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으로 근본적인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중국정부의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업은 국가 소유입니다.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입장은 국유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기업으로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요구로 해석되나 이 요구를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셋째, 미국은 중국 시장을 대외에 더욱 개방하고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검열을 목적으로 외국 인터넷 기업의 서버를 중국 내에 설치해 외국기업의 중국 내 인터넷 사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나름대로 외국기업의 지분제한을 완화하고는 있다 하되 미국은 아직도 맞다고 믿는다는 입장입니다.

넷째, 기술 절취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절도국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겐 미국의 선진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 스스로 선진국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선진기업으로부터 강제적 합작조사를 통한 기술 이전을 담보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국위안 평가절상을 통한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비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위안은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환율제*가 아닌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중국은 위안 평가절하를 통해 관세부과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미국은 앞서 요구한 사항들이 중국 측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리감독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미국 또한 협정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기구를 함께 만들자고 맞바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째,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다음 해 미국 대선 때까지 트럼프의 선거호재로 대중국 무역 분쟁의 성과를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양국의 결단으로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일괄적인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협정문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협정문
을 전부 공개하게 되면 중국은 굴욕적인 조항이 포함된 내용을 중국 국민들
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 특히 시진핑 주석은 그들의 리더
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판단하고 반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처
는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의 입법절차를
통과하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되는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에 대
치되는 불공정 형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 : 각국 통화의 가치, 즉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의 추세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

*****고정환율제** : 고정시킨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

Q3.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와 한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중과의 무역이 자국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들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대만△일본△싱가폴△말레이시아 등이, 유럽에서는 △룩셈부르크△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아일랜드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7%, 12%입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0%를 미중 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79%가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이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생산한 소비재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IT 소재기업들은 대부분의 생산품을 중국 내에서 소비하고, 일부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철강산업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발발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수출은 약 43,7%나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국으로 지정해 한미 FTA**의 철강부분 개정 등의 발발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무역구조상 보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서로 윈윈무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과 기술 특히 △조선·전자·자동차·철강 등이 단기간에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한중간의 무역구조는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으로 일반적
인 인접국가와의 경제공동체 성격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전 세계를 상대
로 지구 반대편 국가들과 FTA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출시장 다변
화가 중국이나 미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힘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장을 장기적으로 확보해가는 유일합방방이라고 봅니다.

*중간재 : 가공생산물 가운데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과정에 투입물로 사용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재화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Q4.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미중 무역 전쟁은 미중 무역 협상으로 그 성격을 바뀔 것입니다. 양국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주목해보면 미국은 언제든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중국을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게임의 끝에는 중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최근 한 투자은행의 전망처럼 이번 연말까지면 미중 무역 협상의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그나마 중국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 찾아오시는 길

- 위치: 서울캠퍼스 본관 2층 220호
- 전화번호: 02-2173-3467~8
- 이메일: kongzi@hufs.ac.kr
- 홈페이지: <http://gongja.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공자아카데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 향상 및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하계 단기연수 과정 및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문의(Tel.02-2173-3467~8)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www.gongja.ac.kr) 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1. 중국어 강좌

- 회화, 新HSK, HSKK, 영화중국어, 비즈니스중국어 등 다양한 강좌 개설 (수강 신청 최소 인원 3명 미만 시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한글 제도: 외대학생인 경우 수업 95% 출석 시, 수강료의 70% 환급

2. 하계 단기연수

- 연수장소: 북경외국어대학교
- 연수기간: 하계 방학 중 2주 과정
- 학점인정: 3학점(학점인정 관련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모집대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및 글로벌캠퍼스 재학생 또는 휴학생(선착순 40명)

3. 장학금 프로그램 지원 기회 제공(추천)

- 중국 국가한문(国家汉办)이 실시하는 중국 현지 연수 및 석사과정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기회 제공 (추천)

가. 모집과정

1. 연수과정
- (1) 연수기간: 1학기, 1년 비정규과정
- (2) 연수분야: 여학연수
- (3) 연수학교: 중국 내 대학교(매년 중국 정부의 공고문에 따름)
- (4) 신청자격: 만 35세 이하(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만 지원 가능)

2. 석사과정

- (1) 학교: 한어국제교육
- (2) 기간: 과정 2년 정규과정
- (3) 학교: 중국 내 대학교
- (4) 신청자격: 만45세 이하, 학사학위 소지자(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지원가능)

나. 장학금 지원 내용

1. 등록금, 학비, 기숙사비 전액 지원
2. 매월 생활보조비 지급

다. 신청 및 선발

1. 신청 기간: 매년 3월 말부터 모집(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2. 선발 방식: 면접 + 서류

4. HSK 시험 신청

- 중국 국가한문(国家汉办) HSK 시험 실시 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시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시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응시

***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www.gongja.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내가 꿈꾼
기자 생활
미리 보기

어려서부터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동경하며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점차 현실을 자각할 때쯤 언론계 취업으로 목표를 바꿨다. 이에 대학 면접 당시에도 막연한 꿈이었던 PD와 연관 지어 면접을 본 결과 우리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바라온 PD란 꿈은 금방 시들어갔다. 그러던 중 어느새 군대에 갈 나이가 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됐다. 자연스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읽기 시작하며 기자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내가 생각하는 기자의 매력은 글의 무게가 남들과 다르다는 점이었다. 기자는 글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도△사람들을 설득할 수도△정의를 옹호할 수도 있다. 그들의 손끝이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존경스러웠다.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외대학보 98기 기자단에 들어왔다. 처음 정기자가 됐을 때 각 종 사회 및 정치 이슈에 관한 기사를 작성해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싶은 열의에 가득 찼었다. 그랬던 큰 꿈은 첫 회의가 시작될 때 바로 무너져내렸다. 학보란 학교 소식을 학우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곳이다. 쓰고 싶은 기사와 써야하는 기사가 너무 달랐다. 기본을 망각한 채 학보에 들어온 내가 조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참회함을 감추려 더욱 학교 소식을 전하려 노력했다. 많지 않은 지인을 총동원해 각 △동아리△자치기구△부총장님 등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작성했다.

정신없는 학보 기자 생활을 하며 기자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만을 쓸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전하는 곳은 학보이다. 학보 기자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글을 통해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직책이다. 만약 내 욕심대로만 기사를 썼다면 이 많은 사건 중 내 입맛에만 맞는 사건을 전달해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단편만 보여줬을 것이다. 하물며 정식 기자가 되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인데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한다면 국민을 희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기자는 좁은 시각 혹은 욕심만으로 사회를 바라봐 중언환사리에 편협한 정보만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느끼게 해줬다.

두 번째로는 내가 본 것만을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자세로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알려졌다. 학보 기자 생활을 하며 ‘피노키오’란 기자 생활을 담은 드라마를 다시 찾아보게 됐다. 극 중 나온 명대사를 신조로 학보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 바로 “사람들은 피노키오가 진실만을 말한다고 생각하며 기자 또한 그렇다”라는 대사다. 피노키오는 자신이 틀린 줄 모르고 본 것만을 얘기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점을 지적했다. 즉,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무시하고 떠드는 사람이 기자가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 말의 무게를 모른 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번 학기는 내게 “△외대학보의△외대학보에 의한△외대학보를 위한” 학기였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견마지기로 외대학보에 사력을 다했다. 아직 미천한 실력이지만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함께해준 △정기자△차장△부장 그리고 편집장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언론이란 무엇인가]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해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종이 뭉치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기자들을 볼 수 있다. 알 권리를 위해 움직이는 기자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그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힘들다. 그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여준 결과이겠지만, 제4의 권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언론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눈과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은 우리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만큼 언론과 무관한 분야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일반인들이 언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엔 그 범위가 방대하고 깊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이 접하는 언론은 단편적인 TV 뉴스와 신문 기사가 전부일 것이다. 나 자신도 언론을 그저 발생한 사건을 전달하는 매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언론인이 어떤 능력과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책을 읽은 후 언론을 바라보면 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다.

언론은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가 깊은 산업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다. 독재정권 시기에는 언론이 매우 강력하게 통제돼 많은 기자가 자신들의 직업윤리를 지킬 수 없어 괴로워했다.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선 자본주의와 결부된 이익 관계로 언론이 특정 기업이나 정부의 꼭두각사가 되기도 한다.

[영화 말모이]
사소함이 지니는 힘

‘말모이’는 조선광문화에서 주시경 선생과 제자들이 편찬한 최초의 우리말 사전 원고를 뜻한다. 이야기는 이 원고를 정식 사전으로 출판하려는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1940년대, 조선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친 일본은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강제한다. 이에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학회는 전국의 말을 모아 사전을 만들고자 한다.

한편 극장에서 일하던 ‘판수’는 직장에서 소매치기를 일삼다 해고된다. 그 뒤 아들 학비를 위해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의 가방을 훔치다 걸린다. 운 좋게도 조선어학회 구상원이던 ‘갑윤’의 도움으로 판수는 조선어학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 까막눈에다 전과자였던 판수는 돈도 되지 않는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점차 말을 익히고 그 의미를 깨달으며 말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심하게 조여 오는 일제의 압박에 조선어학회는 해산될 위기에 처한다. 얌전 데 댈친 격으로 ‘우철’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변절한다. 일제는 본격적으로 조선어학회를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끝까지 우리말을 지키려던 조선어학회는 그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딛고 끝내 조선어학회는 말모이를 완성한다.

언어는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의 표현이며 사용자의 의식과 무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말은 곧 우리의 사고와 이어진다. 말이 사고에 미치는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집에 담긴 물의 양을 말하는 실험을 들 수 있다. 물이 반 정도 담긴 컵을 보

며분 매초 다양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각 각의 사건은 그 발생 배경과 결과를 수반한다. 따라서 사건 중에선 단순히 사실만을 취재해 보도하는 비교적 가벼운 것들도 있다. 하지만 사건을 깊이 파헤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점검하고 더 의심스러운 부분을 조사해야하는 심층적 탐사보도도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직업윤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진 경우,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정확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대중들도 언론이라는 산업을 이해하고 그 생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충분히 비교하고 고민해 정당한 근거를 들어 비판해야 한다. 이러한 성숙한 태도로 언론을 파헤치면 그동안 우리에게 아쉬움을 줬던 모습들이 한편으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편파적이고 공정치 못한 보도를 하는 언론행태는 되돌아보아야 한다. 언론인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양심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독자들이 진심으로 반응해 언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제4의 권력인 언론이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며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또는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로 나뉜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나아가 문화를 만든다. “말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조선어학회가 목숨을 걸고 사전을 만든 이유이자 영화 말모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불필요한 일본어 사용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그러나 이 현상은 최근 미디어를 중심으로 더욱 넓게 번지고 있다. △‘모짜’ △‘간지’ △‘와꾸’ △‘기스’ 등 수많은 일본어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말은 침투력과 흡수력이 강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빠르고 깊게 스며든다. 이뿐만 아니라 굳어진 표현은 위기의식을 허물고 우리의 문화를 지운다. 일제강점기 식민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로 일어난 지 백 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와 공존하고 있다. 어느덧 전 세계가 함께 소통하는 시대가 찾아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 얻는 건 어렵지만 잃는 건 쉽기 때문이다. 흔히 내 안에서 세우는 힘,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나고 자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흔들리지 않는다. 역사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으로 글을 마친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1031호 학보를 읽고

황경민(중국 · 중언문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31호 학보를 통해 현재 우리학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인 레지덴셜 컬리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 사업은 우리학교 신입생들의 영어 실력 제고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숙사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서울캠퍼스에서는 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이 아쉽기도 하다.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참여하기 힘들다는 점과 글로벌캠퍼스 세 개의 단과대학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대학생이 됐음에도 실생활 영어 방면에서 취약함을 가지기 쉬운데, 대학교 차원에서 레지덴셜 컬리지와 같은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총장 직선제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학교의 총장 후보들은 투표권이 있는 교수 중심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 위주의 정책보다 교수 중심의 정책을 우선하는 태도는 많은 학생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기사를 통해 양캠퍼스 총학이 학교 측에 학생 주도 민주적 총장 선출 방식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장 직선제 요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학보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허투렐리 △학

생△교수△교직원 노조 모두 총장 직선제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내어 학교 운영에 관심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4월 말부터 지금까지 큰 이슈가 됐던 패스트트랙 논란을 학교 기사에서 자세히 다뤄줌으로써 사건을 조목조목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현재 전공 수업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토론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팩트 중심으로 중립적으로 쓰인 이 기사가 큰 도움이 됐다. 최근 몇 주 동안 소위 동물 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이 의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뿐더러 국회의원 임기 4년, 대통령 임기 5년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안전 장치인 대통령의 권한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국회 선진화법 중 신속처리안건은 그 필요성이 입증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시기 지정했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현재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하나 패스트트랙이 안전 장치인 대통령의 권한을 고려하더라도,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제1야당의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 또한 완전히 정당한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기사는 패스트트랙 사안을 알고 싶은 학우들로 하여금 사실적으로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1031호 학보를 읽고

정민주(국제지역 · 한국 16)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지난 1031호는 △총장 직선제△레지덴셜 컬리지△학생회 정기총회△글로벌캠퍼스 기숙사 폭행 등 크고 중요한 문제와 사건들을 다뤘다. 특히 이러한 사안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일들이기에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다.

우선 총장 직선제 기사에서는 △총장 직선제를 향한 우리학교의 행보△교수협의회와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면담△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및 교직원 노조 입장△다른 학교의 총장 선거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학교에서의 총장 직선제에 대한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와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의 면담에서 나아가 직접 법인과 동문 등 기타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입장까지 담았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물론 총장 직선제 시행에 대한 문제는 여러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교내 언론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주지 못한 것 같아 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레지덴셜 컬리지를 다룬 기사에서는 레지덴셜 컬리지의 △도입△목표△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레지덴셜 컬리지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이 많았기에 이번 기사는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우려가 큰 기존 재학생들의 기숙사 입사 문제에 대

한 사실 확인도 할 수 있었다. 레지덴셜 컬리지의 시행이 기대되는 바다.

현재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생으로서 이번 달 초에 발생한 기숙사 폭행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자 많은 사생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다. 기사에서는 기숙사 및 경찰 관계자와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달했고, 사건에 대한 대책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 크게 요구되며 학생들의 의견 반영 및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기타 우리학교에서 개최된 다양한 행사들에 대한 기사를 비롯해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이 시대의 블루오션 중앙아시아△사막정 아나운서를 만나 다등의 기사들을 인상 깊게 읽었다. 특히 쉽게 알 수 없는 외국어 원어 연구사(硯畵)를 통해 우리학교만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우리학교 졸업생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로 고민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블루보틀 열풍이 보여주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능성

지난 3일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이 서울 성수동에 한국 1호 매장을 열었다. 미국에서 출발한 블루보틀은 일본에 이어 글로벌 2호 진출국으로 우리나라를 택한 것이다. 개점 당일 블루보틀은 하루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매장 방문을 위해 자정이 막 지난 시간인 0시 3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영업시간 시작 전 수백여 명이 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블루보틀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더 커졌다. 블루보틀은 지금까지도 하루 평균 대기 고객만 200명을 넘는 등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왜 사람들은 블루보틀에 열광하는 것일까? 블루보틀은 대기 시간이 평균 3~4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카페 사업의 기본 공식과도 같은 와이파이가와 콘센트도 제공하지 않는다. 가격 또한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저렴한 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은 블루보틀을 방문한다. 전문가들은 블루보틀 열풍이 포기를 체화한 청년 세대의 ‘플라시보 소비’를 보여주는 예라고 분석한다. 플라시보 소비는 실제 생리 작용이 없는 물질로 만든 약을 뜻하는 ‘플라시보(placebo)’란 단어와 ‘소비’가 결합된 신조어로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축약한 ‘가심비(價心費)’란 단어와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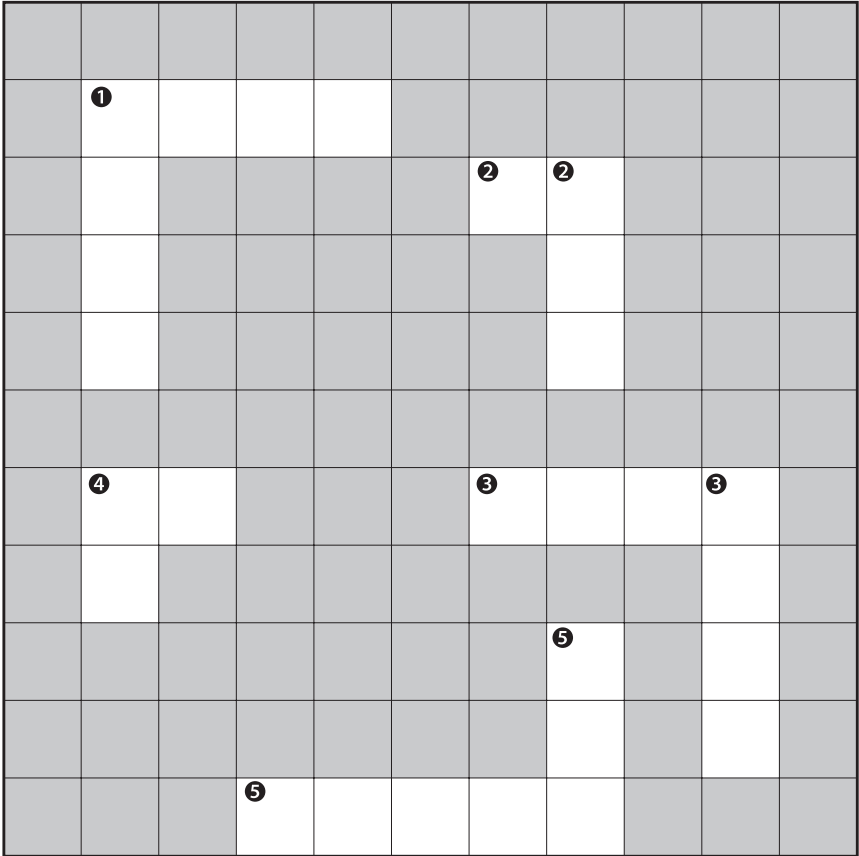
맥상통한다. 이는 가격과 품질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소비 형태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블루보틀의 주 고객층인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에게 블루보틀과 같은 플라시보 소비는 그들의 불확정한 미래 및 여러 포기에서 따라오는 무기력감과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셈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블루보틀이 갖는 ‘희소성’을 경험하며 큰 만족감을 얻는다. 이와 같은 사례는 2016년 7월 미국의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웨이크썬’이 서울 강남에 1호점을 개점했을 당시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자신의 만족감을 중시하며 가심비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형태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관점에 따라 누군가는 이를 옹호할 수도, 누군가는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초영 부장 96_ivana@hufs.ac.kr

십자말풀이



가로

-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이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태평양 동맹정책에 대한 ○○○○를 개최했다. (1면 참조)
-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취두루 마두루’라는 이름으로 ○○를 진행했다. (4면 참조)
- 지난 9일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북조선 인민군 전방 및 서부 전선 방어부대를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했다. (8면 참조)
- ‘박정원 외국인유학생 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타까운 일’이라며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건 피해를 추모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결과가 ○○○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2면 참조)
-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는 ‘○○○○○’ 출범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5면 참조)

세로

-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기구 중 세민전준비위원회는 학교 측에서 감사를 따로 진행한다. (5면 참조)
- 최종현씨는 본부 유엔과정으로 재직 중 ○○○에서 열렸던 북태평양해양과학기술의 일본 대표단에 회의와 상관없는 외무성 직원이 기구가 간행하는 자료상 그간의 ‘동해’ 병기 관행을 뒤엎으려는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아마자 ○○○로 떠났다. (12면 참조)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발생했다. (9면 참조).
-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된 이후 많은 시행착오와 잡음이 있었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소수인원 강의의 ○○이 있다. (7면 참조)
- 꽃 인형 악세사리 배부에 대한 사태를 인지한 총학은 논란 직후 총학 페이스북을 통해 ○○○를 열겠다고 밝혔다. (3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자나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3단 논법을 배울 때 쓰이는 문구다. 3단 논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나는 3단 논법보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더 큰 고민과 관심이 있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이 문구는 대학교에 갓 들어온 새내기, 영어로 ‘Freshman’, 1학년 첫 학기 철학과 학생이 배우게 되는 논리학 시간에 접하는 사실적이면서도 건조한 듯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충격적일 이 문구로 3단 논법을 배웠던 기억이 난다. 나는 30여년이 흘러 지천명(知天命)을 넘기고도 다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심폐사나 뇌사와 같은 의학적인 죽음만이 죽음의 다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인 양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지고, 지인들의 장례식장에 조문 가서 1~2시간 앉아있다 온다. 내 어린 시절 경험한 장례 문화로 볼 때, 현재의 장례문화는 완전히 다른 미래세대의 장례문화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내가 군 입대하던 해에 돌아가셨다. 이분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집에서 임종을 하였고, 그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 어른들은 모두 베로 된 누런 상복을 입고 곡을 했다. “아이고~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우리 산으로 가서 삽으로 무덤을 파고 천천히 흙을 넣어 무덤을 만드는 긴 의식이었다. 불과 몇 십 년 만에 우리의 장례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임종은 병원에서,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얼마 전 우리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두 명이 학교 뒤 주택가에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미국 예일대 셸리 케이건의 ‘죽음’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로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죽음에 대하여 모른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그의 강의인 ‘죽음’은 미국 아이비리그를 대표하는 3대 명강의로 꼽히는가 하면, 우리학교의 무크(MOOK)와 비슷한 유형의 오픈 예일 코스(Open Yale Course)의 대표강의로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 강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그의 책이 바로 앞에서 말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다. 그는 죽음을 모른다고 하면서도 문헌적인 여러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강의를 구성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얘기한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그의 강의는 명강의가 됐을까? 그리고 그의 강의록은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여기서 그 이유를 세세하게 따지자는 건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을 주제로 다뤘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류사에서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것은 오래된 것이다. 인간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원초적인 시절, 태어나 살고 죽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유가 시작된 것일 것이다.

가까이는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앞 왕산리의 지식묘라든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 유적이 남아있는 전북 고창의 고인돌 군으로부터 청동기 시절의 인간의 죽음에 대한 사유와 의식행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전 세계 고인돌의 6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에만 3만여 기의 고인돌이 있어 고인돌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다. 화담 선생(花潭 徐敬德, 1489~1456)의 『신귀사생론(神鬼死生論)』 등으로부터도 우리 전통의 죽음 이해를 엿볼 수 있다. 또 중국에서는 춘추시대의 『장자』 등을 통해서, 또 멀리는 인도 『아유르베다』나 『장야함경』에도, 티베트 『사자의 서』에도,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에게도 죽음은 인류문명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보편적 주제였고, 오늘날에도 전 해들을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늘 삶과 함께 있는 것이다.

법정(法頂, 1932~2010)의 『아름다운 마무리』(2010)에 이런 말이 나온다.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영혼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영혼은 육체가 자기 할 일을 다했음을 알고 낚은 옷을 버리듯이 한쪽에 벗어 놓는다. 일단 죽게 되면 미련 없이 내생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각오를 평소에도 지니고 다 녀야한다. 우리 모두 매일 매일 잘 살기를 바란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은 살음이고 사름이다. 생명이라는 불꽃을 사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이 곧 살아지는 것이고, 살아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잘 사라지도록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생사(生死)가 일여(一如)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6mounta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나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미래의 언론인, 99기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나는 백만인의중견보다, 성장의 실존자를 더 두려워한다”
-나폴레옹-

- 모집대상 양 캠퍼스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학생 누구나
- 지원마감 5월 23일
- 필기시험/면접일 서류 심사 후 개별 연락
- 합격자 공지 필기시험/면접 후 개별 연락
- 활동 혜택 언론 장학금 혜택
취재 활동비 및 취재 수당 지급
사회 각계의 선배들과의 만남

▶ 지원서 수령 및 문의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한국외대 상 주인공,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를 만나다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개교 6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외대 상의 주인공으로 최종현(사회·정치외교 76) 전 주 네덜란드 대사가 선정됐다.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는 △국익 증진을 위한 헌신△우리학교 외교부 동문회 회장 역임△멘토 역할 수행 △우리학교 외교관 지망생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 등 학교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우리학교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그의 활동에 학교에선 자랑스러운 정치외교학과 동문이자 베테랑 외교관인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를 '한국외대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오랫동안 외교관의 길을 걸어온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외대 상'을 수상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할 때 망설임 없이 우리학교를 택했습니다. 외교부에 들어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하며 모교가 마음속에 더욱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한 모교로부터 상을 받아 매우 기쁠 것입니다.

Q2.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고시 공부에 전념하는 것과 학교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의 학과 중에서 외교관의 직업과 가장 관련이 있는 학과가 정치외교학과인 만큼 정치외교학을 전공한다는 데 대해 만족하고 자긍심도 가졌습니다.



▲김인철 총장에게 상패를 받는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

Q3. 언제부터 외교관을 꿈꾸셨고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생이었던 60년대의 청소년들은 외국영화와 팝송을 즐겼는데,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문물을 접하면서 그러한 관심은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역사, 지리 등 과목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목표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 데, 장래 희망으로 공직을 택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 되는 시험 준비는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충실히 들으며 틈틈이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부전공을 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 선택과목 중 하나인 행정학을 택했는데, 고시 과목을 떠나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재미있어서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대학생들이 종교교생 공부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저는 특히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여가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고시는 공부에 집중해 시작하지 1~2년 안에 붙는 경우와 이런저런 이유로 오랜 세월 고시생으로 있다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시험 준비에 집중했다면 외교부에 좀 더 일찍 들어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Q4.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특히 기뻐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열망했던 직업을 갖게 되어 매 순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기뻐했던 순간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바다 명

칭으로서 우리정부는 '일본해'와 '동해' 명칭이 병기되도록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04년 봄 본부 유엔과장 재직 당시 어느 날 관계부처로부터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회의 일본 대표단에 회의와 상관없는 일본 외무성 직원이 포함돼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가 간행하는 자료상 그간의 '동해' 병기 관행을 뒤엎고 '일본해' 명칭만 사용되도록 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제주도로 떠났고 회의에 참석해 '동해' 명칭 병기를 6개 회원국 간 투표 끝에 지켜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생 기억하는 기쁜 순간이 몇 순간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의 기쁨과 흥분을 잊지 못합니다.

Q5. 외교관의 역할과 외교관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이 궁금합니다.

국제사회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 사회인 만큼 외교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무력을 통한 국가 간 분쟁 해결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외교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으로 주요국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외교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교관의 덕목 또는 자질로는 △애국심 △지식 △열정 △정직 등이 이야기됩니다. 정년퇴직해 뒤돌아보면 지식과 언어 능력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나이가 세계의 주요 언어별로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외교 인력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앞으로의 목표 및 계획은 무엇인가요?

아직까지는 정년퇴직 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Q7.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 생활은 직업으로 가는 여정의 마지막 역입니다. 직업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 하는 일의 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잘 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아하고 또 잘 하는 일을 대학 재학 중 찾아내고, 그 직업으로 가는 길을 다지는데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외교관의 꿈을 갖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대학 시절 인상 깊게 본 영화의 '그는 마지막 인내에서 패배했다'라는 대사를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뜻을 세우셨으면 끝까지 참아내어 꼭 외교관이 되십시오. 힘들 때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그만큼 얻기가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의 근무 시절, 네덜란드의 6.25 한국전 참전 부대 행사 장면



LOTTE HOTEL WEDDING ETERNITY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롯데호텔 웨딩이 도와드립니다.



서울 02.771.7474/9939 월드(서울잠실) 02.411.7575 부산 051.810.6500 제주 064.731.4277-8 울산 052.960.4200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